

성령강림주일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PENTECOST SUNDAY

주후 2021년 5월 23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177 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새 190)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63 번 성령강림절(Whitsunday)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 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도 Prayer of Intercession		윤영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Leading	사도행전(Acts) 2:1-13	이수진 집사
설 교 Sermon	“다시 만나는 교회(28) – 성령으로” (Gathering Together Again – Within Holy Spirit)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찬 송 Hymn	283 장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새 227) 1, 2 절	다같이
주의 만찬 Communion	(흠어져 나누는 주의 만찬)	다같이
찬 송 Hymn	283 장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새 227) 4, 5 절	다같이
봉 헌 Offerings (특송: 윤홍준, 금종각, 고민영 집사, 반주: 고혜정 집사)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524 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새 222)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사로 잡혔던 우리의 불신앙과,
육신의 정욕과 안락함을 추구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하나님과 무관하게 너무나 분주하기만 했던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불신앙과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유혹의 욕심을 따르려는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좇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거룩한 새 사람”으로,

매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엡 4:22-24)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한글개역 행 2:4)

“All of them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speak in other tongues as the Spirit enabled them.” (NIV Acts 2:4)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5/23 (주일)	5/24 (월)	5/25 (화)	5/26 (수)	5/27 (목)	5/28 (금)	5/29 (토)
	민32	민33	민34	민35	민36	신1	신2
본문	시77	시78:1-37	시78:38-72	시79	시80	시81,82	시83,84
	사24	사25	사26	사27	사28	사29	사30
	요일2	요일3	요일4	요일5	요일1	요일삼1	유1

수/요/성경공부

토/요/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5/26수 오후7:30)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고후 4:8-18)
토요 새벽기도회 (5/29토 오전6:30)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 39:1-13)

지난 주일(5/16) 말씀

“다시 만나는 교회 (27) – 분별함으로” (빌 1:3-11)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옳게 분별하며, 또한 진실하여 허물이 없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 위해, 3가지 중요한 원리를 언급하는데, 1)첫째는 (참된) 지식이고, 2)둘째는 통찰력이며, 마지막 3)셋째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른 (영적) 분별을 위해, 1) 먼저 우리에게서 참된 지식(Real Knowledge)이 필요한데, 이는 단순한 정보나 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어야 하며, 또한 2) 우리에게서 ‘통찰력(Insight)’이 요구되는데, (이는)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고, 그 속에 감추어진 내면을 간파하기 위함이며, 마지막으로 3) 우리에게서 반드시 ‘사랑(Love)’이 더해져야 하는데, 이는 바른 분별을 위해, 참된 지식과 영적 통찰력이 요구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에 (반드시) 사랑이 더해져야만,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없다고 인정받게 되며, (또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이웃과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것이며, 또한 사랑하는 게 좋은 것”임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른 분별을 통해,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더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메/모